

PDP 기술 약진 소재시장 무한성장

특허청, 국내3사 특허출원 1985건 ... 네온 및 헬륨가스 수요급증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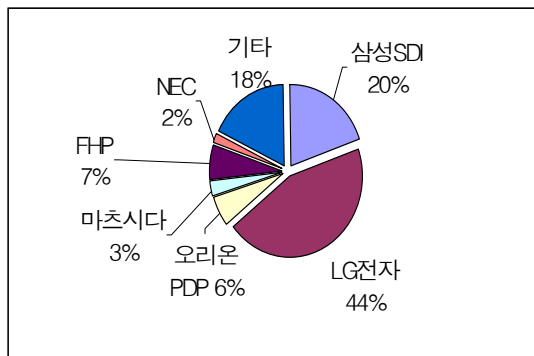
최근 세계적으로 벽걸이형 TV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장치(PDP)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PDP 관련특허 출원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PDP 관련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1994년 86건에서 2002년 766건으로 연평균 98.9%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전체 출원 중 LG전자, 삼성SDI, 및 오리온PDP 등 국내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70%에 육박해 국내에서 PDP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반영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출원인으로는 LG전자가 전체 특허출원의 44%를 점유했고, 삼성SDI가 20%, 오리온PDP가 6%로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으로서는 후지쓰와 히다치의 자회사인 FHP가 전체 특허출원의 7%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츠시타, NEC 등도 참여하고 있다.

PDP 관련 특허출원 점유율(1998-2002)



전문가 사이에서는 PDP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평가와 이제는 상용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PDP 시장점유율과 생산능력 1위를 다투고 있는 LG전자와 삼성SDI가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이어서 한국이 PDP 최대생산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전망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28>